



時計發明의 외길 40年

韓國特殊時計開發公社 崔萬一 회장



〈崔萬一 회장〉

40여년을 時計 發明과 더불어 살아온 韓國特殊時計開發公社 崔萬一 회장. 崔회장은 우리 近代 時計史의 아버지로 불리울 정도로 時計에 관한 國內 第1人者로 손꼽히고 있다.

特許 15件·實用新案 10件·意匠 7件·商標 6件이 이를 立證해주고 있다.

國內 最初の 時計관계 特許인 「덤프구동장치」로 特許 第1352號를 받기도한 崔회장의 一生은 時計, 바로 그것이 全部였다.

崔회장은 民族의 悲運때문에 日

本에서 태어나왔고, 철이 들기도 전에 國民학교를 다니며 時計技術을 배워야 했다.

日本에서의 어린시절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오늘의 時計發明王 崔萬一회장과 韓國特殊時計開發公社를 誕生시켰다.

日本에서 時計技術을 익힌 崔회장은 8.15해방과 함께 서둘러 귀국했다. 당시 16세인 崔회장은 귀국과 함께 時計部品商을 차리고 部品을 만들었다.

또 밤에는 야간학교에 나가 못다한 공부를 하고 틈틈히 운동도 하여 오늘의 知德을 결미한 技能人 및 發明人 출신 經營人으로서 유도 7단의 老練사가 되었다.

뛰어난 技術로 時計部品商은 나날이 번창, 崔회장은 時計工場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6.25 직후인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에서 時計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다. 이 때문에 崔회장은 5번이나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

다. 그러나 이 정도로 쓰러질 崔회장이 아니었다.

崔회장이 發明한 特殊時計인 눈동자가 움직이는 완구時計·꽃속을 나비가 나는 時計·탑時計·달時計·콘트롤時計등은 이제 國內 市場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등 7개국에 팔려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發明한 「소형時計 트브먼트」는 우리나라 時計業界의 태풍의 눈이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트브먼트의 機械構造 및 IC回路인 이 發明은 기존의 時計트브먼트에서 초침에 연결된 기어구동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얇고 작은 부피의 時計트브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特徵.

崔회장은 IC回路를 제외한 의장 및 機械 本體를 自體技術로 製作하는데 成功, 國內는 물론 世界 時計市場에 도전장을 낼 준비가 完了되었다. 그러나 崔회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남은 여생도 時計發明과 더불어 살 計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활짝 웃었다. <☞>